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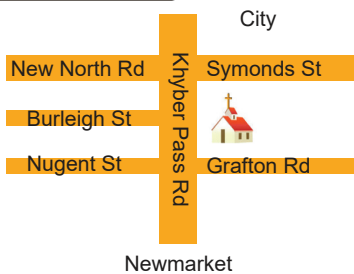
갈보리소식

1. 7월 17일 교회창립 17주년이 되는 주일에 감사예배와 임직예식이 있습니다.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주일은 성찬주일로 지키며 세례예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한 주로 성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6월의 수요일예배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4. 선교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결단의 예배로 종강합니다(선교일정: 7월 5일-7월 12일, 7박 8일).
5. 피택 향존 직분자 훈련이 계속 됩니다(오후4시). 이번 주 훈련은 '선배와의 시간 2'입니다.
6. 새벽기도회가 매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7. 매주 월요일기도회가 오후 7시 30분에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됩시다.
8. 갈보리 성경릴레이 16번째 조은희 집사 완독했습니다.
9. 선교학교에 간식 제공해주신 성도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전교인 성경통독 릴레이: 16회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주일 PM 1:00
- 청년모임 주일 PM 3:00
- 수요일예배 수요일 PM 7:30
-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 아동부 주일 PM 1:00
- 중고등부 주일 PM 1:00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 이 태 한
- 부 목사 : 심 창 진
- 부 목사 : 이 성 철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18권 25호
2016년 6월 19일 주일

2016년 표어

거룩 (롬12:1)

부흥 (마5:8)

나눔 (잠11:24,25)

1.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2. 교회학교를 일으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3. 선교와 전도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4.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담임/목사
이태한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시편 29:1-2,11

◎찬 송 전능왕 오셔서 10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

대표기도 이규임 권사

성경봉독 말라기 3:7-12

찬양대 찬양 내 영혼아 주를 찬미하라/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태한목사

찬 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살아계신 주(1,2절)

◎축 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6월 교회일지

친교모임: 6월 6일(월요일) 예 배 안 내: 손조훈/김순자
금요저녁기도회: 6월 10일(금요일) 새신자안내: 박혜숙/이정인
선교회종강: 6월 24일(금요일) 최희숙/
성찬주일(세례식): 6월 26일(주일)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윤경례/박제란
김명옥/유현남
민경아

6월 예배봉사자

기도순서

이번주 애찬: 임혜자 권사
다음 주일: 정덕수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소정훈 자매
6월 29일 수요일: 박소진 집사
6월 29일 애찬: 민선희 집사
7월 3일 주일: 정진택 집사
7월 3일 청년부: 김민한 형제

청년 모임

오후 3시

소그룹 나눔과

성경공부

기도 / 김정훈 형제

수요 예배

찬양 수요 찬양단

기도 정옥자 권사

성경봉독 에베소서 2: 21-33

설교 아가페 사랑/
이태한 목사

광고 인도자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주기도 다같이

금주의 기도제목

1. 창립 17주년을 맞는 교회가 성령충만하여 더욱 성숙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2. 교회학교 교사와 교역자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가 날마다 더해지도록.
3.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성도, 복음에 감사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어 세상을 이기도록.

선교와 중보기도

인간의 염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지난달 5월 6일(금), 바누아투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학교가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연령이 다양하게 꾸려진 선교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팀웍인데 그것이 빠른 시간 안에 형성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선교학교는 계속되었고 출발 예정인 7월 9일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표를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년에 비해 너무 오른 항공료 때문이었습니다. 일시적이겠거니 한주간을 기다렸으나 항공료는 정지한채로 내려올줄 몰랐습니다. 바누아투가 아닌 피지로 갈지, 조금 늦추어 11월 말에 가야하나 설왕설래 하면서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보는 한편 안면 있는 여행사에 문의 했으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저이기 염려가 되어 성도들과 팀원들에게 알리고 한주간 함께 기도하고 난 후 다시 의논하자고 했지만 팀원들도 이런저런 개인 사정으로 훈련에 참여하면서도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난 영적인 싸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두번째 전체 모임에서 회비를 항공료로 다 사용할지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뜻이 모아져 표를 알아보았지만 예정일에는 자리가 전혀 없고 7월 5일에는 그나마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함께 가는 청소년부 학생들의 방학이 7월 9일인데 4일씩이나 학교를 빠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훈련을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가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리로 기도하자고 하면서도 제 마음은 염려와 함께 어수선, 복잡, 혼란 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성도들의 기도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잘 아는 목사님과 바누아투 항공사를 찾아가서 사정해보기로 결정한 날 밤에 행어나 하고 인터넷을 살펴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장승처럼 고정되어 있던 항공료가 기도했던 그 가격으로 내려와 미소짓고 있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가격인지라 서둘러 구입했습니다. 사고나자 청소년부 학생들로부터 학교에서도 허락했다는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염려 했어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 갈보리 교회 선교팀이 바누아투 땅을 밟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염려하므로 키를 한자라도 더 할 수 있는냐는 말씀이 새삼 다가와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영적인 싸움에 이겨 한마음이 되는 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남은 일정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기 소망하며 성도 여러분들의 쉬운 기도 부탁드립니다.